

21세기 新채용문화를 이끌어 나가는 기업

# 인크루트(주)

기업이념 'human Resource & humanity' 를 바탕으로  
개인에게는 준비된 사회 구성원이 되는 길을 제시하고,  
기업에게는 효과적인 채용관리시스템을 제공하는 인크루트,  
기업과 인재간의 상생코드를 조화롭게 소통시키며 신뢰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인크루트를 방문했다.





## 이력서를

처음 써 보는 대학 3학년생, 권만겸 씨. 대학 선배인 대학 사업 1팀 우덕제 컨설턴트의 추천으로 이번 체험에 참여하게 됐다는 그와 함께 찾아가던 인크루트. 젊은 기업답게 세련되고 깔끔한 회사 전경이 먼저 눈에 띈다.

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인 권만겸 씨는 체험에 앞서 “아직은 어떤 체험을 하게 될지 몰라 얼떨떨해요.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 될지 설레기도 하고요”라며 활짝 웃어 보였다. 다소 긴장한 표정이 비쳤던 그는 막상 취업 상담이 진행되자 좀 전과 달리 반짝거리는 눈으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아직까지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한 번도 작성해 보지 않았다는 권만겸 씨의 첫 번째 체험은 이력서 작성. 잠시 머뭇거리다 써 내려간 그의 이력에는 지난 해 외국인투자기업채용박람회 ‘비즈니스스위게임’ 우승이라는 화려한 경력도 보였다. 일일벤처체험으로 특별히 진행된 컨설팅에서는 구직자가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이력서 작성하는 법과 면접 Tip을 배울 수 있었다. 이 자리에서 컨설턴트는 기업들의 최근 취업 경향 등을 짚어주며 실제 구직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취업 희망 기업에 어필할 수 있는 이력서 작성에 관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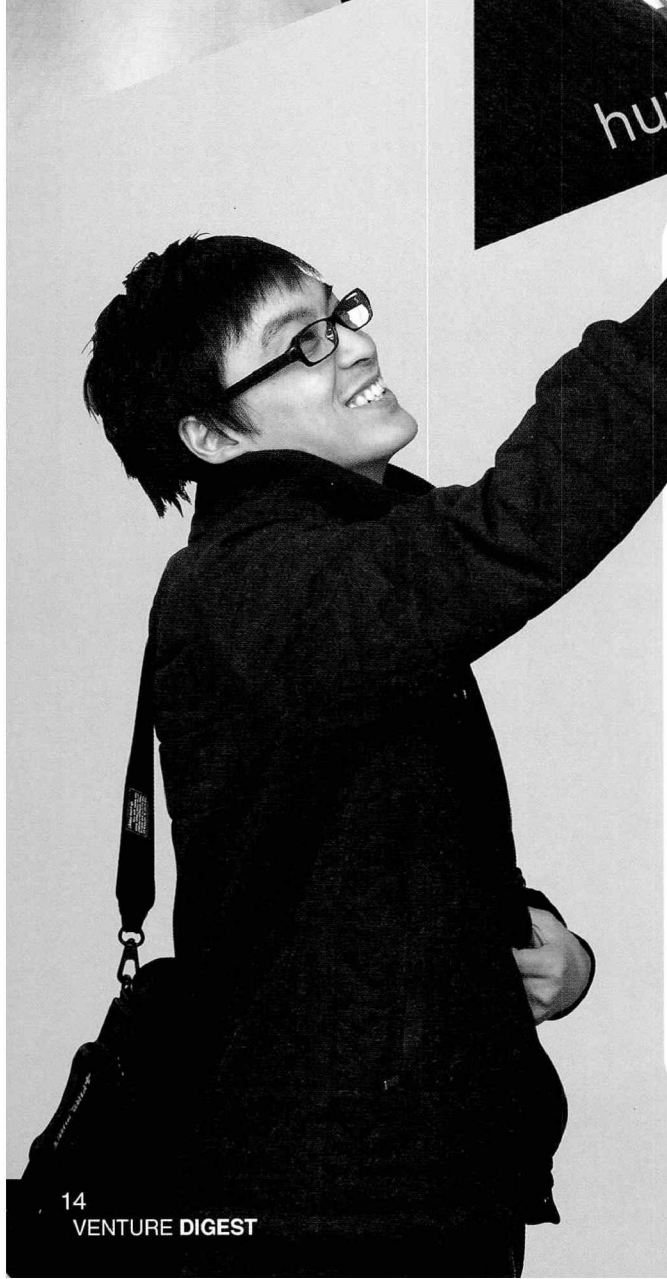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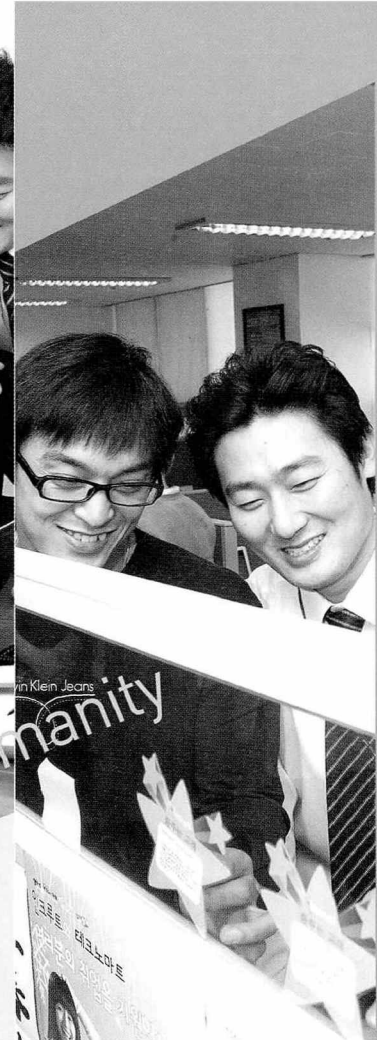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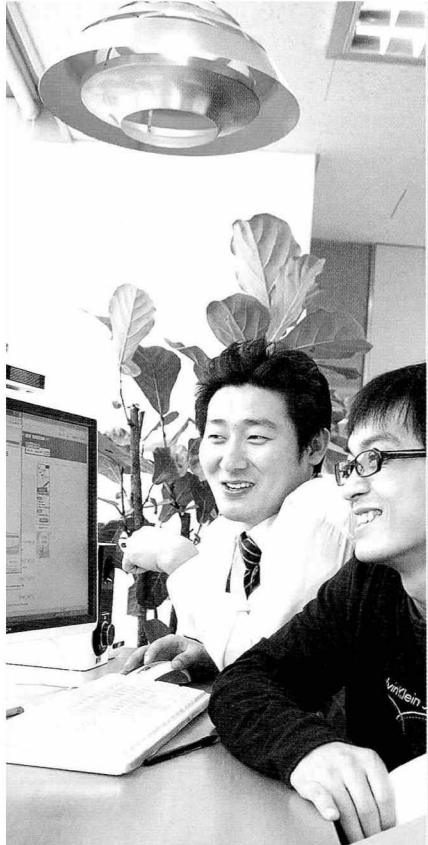
인크루트는 인터넷 채용시장을 개척하며 21세기 글로벌 인재와 기업을 신뢰와 인화로 엮어 주는 미래형 네트워크 시스템을 갖췄다. 단지 개인과 기업 간 구직, 구인뿐 아니라 관련 교육과 박람회 등을 개최하고 인터넷을 통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며 든든한 동반기업으로써 자리매김 했다.

컨설팅을 마치고 다음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권 씨는 “이제 남들이 해보지 못한 경험을 해본다는 설렘보다는 이번 기회를 통해 구직자로서 취업을 준비하는 한 단계를 더 밟을 수 있다는 생각에 긴장이 되네요”라며 이번 일일벤처체험에 남다른 각오를 내비쳤다.

바로 이어진 프로그램은 권만겸 씨의 선배 우덕제 컨설턴트의 실제 업무 체험. 우덕제 씨가 근무하는 대학사업팀은 대학졸업자들이 취업 시 필요한 실무내용을 미리 숙지해 취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학점제 진로강좌’, ‘인턴사무국 운영’,

하루종일 진행된 인터뷰와 사진 촬영에도 연신 웃음을 잃지 않는 권만겸 씨. 회의 준비도 꼼꼼히 모니터 하며 일일체험 프로그램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human Resource & Humanity

‘여학생 교육프로그램’, ‘사이버 취업강좌’, ‘온라인 캠퍼스’, ‘기업실무 인재 양성 교육’을 포함한 ‘취업전산망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교별 맞춤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전반적인 교육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우덕제 씨의 업무 전반에 걸친 설명이 끝나자 비로소 회사 이곳저곳을 둘러보는 권만겸 씨.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젊은 기업답게 웃음이 끊이지 않고 체침자 권 씨에게 배려를 아끼지 않는 직원들의 모습이 사내 분위기를 짐작케 했다. 특이한 점은 우덕제 씨의 자리에 붙어있는 별. ‘춤추는 고래’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이 별은 의미가 남다르다고. 인크루트 사내 프로그램 중 하나로 사내 분위기를 좋게 한다거나 동료들을 잘 돕는 직원에게 수여하는 ‘칭찬마크’다. 별 2개를 자랑하는 선배와 연신 밝은 표정의 직원들과 함께하는 사내 분위기가 편안했는지 이어지는 사진 촬영에서 권만겸 씨의 표정이 한층 부드러워졌다.

체험 중 마침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장난스러운 선배의 진지한 모습이 사뭇 달라보였어요. 함께 농구하던 형이 아닌 사회인으로 의젓한 모습이랄까? 회의 중간 중간에 직원 분들이 배려를 해주셨는데 회의를 방해한 건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라며 특유의 밝은 미소를 짓는 권 씨.

“인크루트가 어떻게 인터넷 상에서 채용장터라는 신천지를 개척하며 진화할 수 있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앞으로 취업을 했을 때 본인 또한 새로운 발상의 전환으로 회사와 자신이 모두 Win Win할 수 있는 앞선 생각을 해야겠다는 말도 잊지

# 인크루트

않았다.

인크루트의 또 하나 강점은 '경력개발연구소'. 지난 2003년 설립 이래 인재육성 프로그램과 인사 전문 잡지 '인재경영'을 발행하고 있다. '인재경영'은 인재 선발부터 인재관리, 인재교육 및 개발, 인재활용, 퇴직관리에 이르기까지 인사와 관련된 전 부문을 심도있게 다룬 인사 전문잡지로 HR분야 연구원, 학계, 기업 인사전문가 등이 대거 필진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기존 인사잡지에 비해 전문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많은 인재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되는 데 공헌하고 있다. 또한 고객만족 인증제, 인맥관리도구 서비스, 오픈 샐러리 서비스, 공공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구직과 구인에 관련한 전반적인 정보를 다각도로 서비스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해 9월 오픈한 '인크루트 TV'는 업계 최초로 취업, 경력개발, 인사를 아우르는 멀티미디어 콘텐츠로 각각 5~7분 정도의 시간 핵심적인 정보를 습득할 수 있어 각광을 받고 있다. 권 씨도 '인크루트 TV'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프로그램을 보면 전략적으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서비스는 놓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서 인크루트 전 사업부를 방문하며 각각의 업무 내용과 분위기 등을 살필 수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권만겸 씨의 눈빛이 더 초롱초롱 해지며 열의까지 보여 함께 진행한 스텝진마저 긴장했다는 후문이다.

일일체험 내내 작은 부분 하나까지 꼼꼼히 놓치지 않던 권만겸 씨. 비록 하루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미래 자신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었다며 "취업 전 그 밑바탕을 칠하는 나름의 맵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은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지,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어떠한 부분에 투자해야 하는지 좀 더 명확해 졌다고 해야 할까? 좋은 기회 주신 선배님과 벤처다이제스트 모두께 감사합니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인크루트는 구직자들이 취업준비를 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발행하는 '취업상품권'과 관련 책자 등을 선물하며 권만겸 씨와의 만남을 마무리했다.

인크루트는 구직자 뿐만 아니라 기업 인사담당부서,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등을 통해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개인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기업이다.



## Mini Interview

"대학 학과 선배의 추천으로 이렇게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선배의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도 했고요". 현대자동차 마케팅팀에 입사하고 싶다는 권 씨는 "오늘 보고 배운 값진 경험이 훗날 꼭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취업준비로 영어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관련 공모전에도 꾸준히 참여할 생각입니다. 오늘처럼 실질적인 체험은 수업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하나하나 저를 만들고 다듬다보면 목표는 반드시 이뤄진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한다.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다' 라는 말처럼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젊은 기업과 젊은 인재의 노력은 앞으로 계속 될 것이다. 젊음 만큼 열정과 웃음이 넘친 인터뷰를 마무리 하며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는 하루가 됐다든 권만겸 씨. 또 하나의 가족을 만날 수 있어 좋았다는 인크루트의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된다.